

# 이라크, 화학기업과 불법자금 거래

## 리베이트 200만달러 육박 ... 석유-식량 교환프로그램 도덕성 시비

글로벌 화학기업들과 이라크의 리베이트 불법자금거래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.

UN IIC(Independent Inquiry Committee)에 따르면, 글로벌 화학기업들은 이라크의 석유-식량 교환프로그램(Oil for Food Program)에 참여하면서 사담 후세인 정부에 200만달러의 불법 리베이트 거래를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Air Liquide, Bayer, CNOOC, Ciba Specialty Chemicals, Dow AgroScience, Onda Nalco, Rhodia, Rohm & Haas, Sinopec, Sinochem 등 글로벌 화학기업들은 석유-식량 교환프로그램에 따라 석유를 구매하고 각종 화학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사후관리비(ASSF) 명목으로 제품 공급가격의 10%를 리베이트로 상납했다.

Rohm & Haas, Ciba, Dow Chemical, Nalco, Sinochem 등은 10월 말 IIC의 보고서가 공개되자 즉각 내부감사에 착수했으며 UN과의 공조를 통한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.

화학기업들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총 리베이트 금액은 18억달러로 Volvo, Siemens, 대우 등 66개국 2392개 기업이 불법거래에 연루돼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훼손된 기업이미지와 도덕성 논란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.

이라크 납품 화학기업들의 리베이트 거래현황 (단위: 달러)

| 구 분 | 회사명                      | 공급제품      | 금 액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스위스 | Alcor Chemie             | 고강도 화학제품  | 1,853,754 |
|     | Ciba Specialty Chemicals | 염 료       | 47,183    |
| 벨기에 | Angus                    | 난연성 화학제품  | 179,323   |
|     | Flexsys                  | 고무 화학제품   | —         |
| 프랑스 | Dow AgroSciences         | 농화학제품     | 127,999   |
|     | Franco Petrochemique     | 고강도 화학제품  | 1,365,497 |
|     | Rhodia Silicones         | Chemicals | 3,578     |
|     | Rohm & Haas              | 수처리제      | 64,211    |
| 이태리 | Chimec                   | 수처리제      | 103,686   |
|     | Onda Nalco               | 수처리제      | 58,455    |
| 요르단 | Rhodia Middle East       | Chemicals | 152,414   |
|     | Solvochem                | Chemicals | 2,376,909 |
| 터 키 | Bayer Turk Kimya         | 농화학제품     | 555,800   |

자료) IIC

한편, 석유-식량 교환프로그램은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경제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석유 판매 수입금을 식량, 생필품, 의약품 구매와 전쟁 배상금 지불에만 사용한다는 조건을 붙여 석유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정책으로 1995년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승인됐다.

<화학저널 2005/12/05>